“광주의 따뜻한 손길 감사…새로운 고향서 새 꿈 키워요”

광주 고려인마을의 새해 희망가

타국살이 어려움 딛고 안정적 정착
한국서 새해 맞이하며 기대 부풀어
23학번 새내기 대학생도 10여명
뮤지컬 배우·간호사·통역사 꿈 꿔
“새해에는 꼭 전쟁이 끝났으면”

딸부자 알렉산드르씨의 가족이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의 자택에서 희망찬 새해를 다짐하고 있다.

안엘레나

김율리아

크리스티나

김아나스타샤

2023년 계묘년(癸卯年)이 남다른 이들이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피해 고향을 떠나 광주에 정착한 고려인 동포들이 주인공이다.

이들은 독립운동가였던 조상의 뿌리를 찾아 한국, 그중에서도 연대와 나눔의 도시이자 고려인 동포를 돕기 위한 인도주의적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 광주에 터를 잡아 전쟁의 아픔을 지워가고 있다.

지난해 2월부터 한 해 동안 광주로 이주해온 868명의 고려인 동포와 기존에 정착한 고려인 동포들은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마을에서 2023년 새 희망을 키워가고 있다.

1일에 만난 고려인 동포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일상을 꿈꾸는 바람이 묻어났다.

◇토끼띠 딸 둔 일곱 가족의 희망가=“새해에는 토끼띠 딸 덕분에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아요”

전쟁을 피해 우크라이나에서 지난 4월 온 가족이 광주에 모인 알렉산드르(42)씨가 딸 알비나(여·11)양을 안고 부푼 목소리로 말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광주에서 이주노동자로 일을 하는 알렉산드르씨는 지난해 2월 아내와 다섯 딸이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자 밤잠을 설쳤다고 한다. 다행히 그의 소식을 접한 고려인마을 주민들의 도움으로 지난 4월 부인과 딸들이 모두 무사히 광주에 들어와 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

집에 폭탄이 떨어져 지붕에 비닐을 대고 생활했다는 부인 타치아나(33)씨는 “안전한 곳에서 가족이 함께 생활해 한결 마음이 놓인다”면서도 “새해에는 꼭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가족이 한국에서 처음 맞는 새해인만큼, 이들은 온가족이 모여 준비한 음식을 1일 0시에 같이 나눠 먹는 우크라이나 식으로 새해를 맞았다.

첫째 딸 미아(15) 양은 “우크라이나는 동물띠에 따라 새해 음식을 다르게 준비하는데 토끼띠 해는 여러가지 채소를 먹는 토끼에 맞춰 반찬을 많이 준비한다”면서 “고향에서 맛볼 수 있는 우크라이나 전통 음식 등 각종 반찬 등을 많이 먹어서 좋은 것 같다”고 웃었다.

2011년생 토끼띠인 알비나(11) 양은 “새해 선물로 아빠한테 우쿨렐레를 받았다. 올해 목표는 우쿨렐레를 잘 치는 것” 이라며 “토끼는 귀여우니 좋다. 올해가 토끼띠라니 왠지 좋은 일만 생길 것 같다”며 웃어 보였다.

알렉산드르 씨는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첫 새해라 의미가 크다”며 “올해에는 더욱 열심히 일해 온 가족과 함께 완도 바닷가를 가보고 싶다”고 말했다.

◇전쟁으로 고향집이 사라진 가족의 바람=광주 고려인마을에 정착한 안엘레나(여·43)씨의 새해 소원은 가족들의 건강이다.

엘레나씨는 지난해 4월 러시아군의 폭격에 집이 무너지면서 한때 절망에 빠졌다고 한다. 밭농사로 생계를 이어가던 엘레나씨의 밭과 집이 러시아군의 포탄에 초토화 되고 지하에서 한달간 숨어 살며 매일매일이 공포를 느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려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한국의 마을에서 이주를 지원해준다는 소식에 한가닥 희망을 삼았다. 이후 온 가족이 폴란드를 거쳐 한국에 들어와 무사히 정착하게 됐다.

엘레나씨는 “가족들 아프지 말고, 딸도 취업하고, 나도 지치지 않고 힘낼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평범한 새해 소망을 빌게됐다고 밝게 웃었다.

그는 부모님과 청각장애를 가진 딸을 혼자 부양하고 있다. 경제적·체력적으로 벅찬 한 해를 보냈지만, 한국에서 맞는 첫 새해에 희망을 걸고 있다.

최근 장애인 복지와 취업지원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행정복지센터에 딸의 장애 심사를 신청한 데 이어 2023년에는 딸이 취업까지 성공하는 것이 목표다.

엘레나씨는 “전쟁을 겪고나니 먼 미래까지 계획하는 건 어렵겠지만 온 가족이 모였으니 새해에는 하나씩 천천히 이루어 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대학 새내기가 된 새날학교 학생들=고려인 동포가 다니는 새날학교에는 10여 명의 2023년 대학 새내기들이 있다.

타지에서 낯선 문화와 언어로 고생했지만 이제는 통역까지 가능할 정도로 한국말을 하는 이들은 모두 대학 생활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나는 고려인이다’를 보고 뮤지컬 배우를 꿈꿔온 김율리아(여·20)씨는 올해 호남대 미디어영상공연학과에 진학을 앞두고 있다.

율리아씨는 “올해는 토끼처럼 깡충깡충 뛰어다니며 대학에서 친구들과 공연도 보고 여행을 다니며 열심히 살아보려고 한다”면서 “뮤지컬 ‘맘마미아’처럼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다”고 희망했다.

간호사가 장래희망인 김아나스타샤(여·20)씨는 광주보건대 간호학과에 진학한다. 아나스타샤 씨는 코로나19가 한참인 지난 3년동안 매주 화요일 고려인광주진료소에서 통역 등의 봉사활동을 하면서 꿈을 키웠다.

아나스타샤씨는 “ 내성적인 성격탓에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설레면서도 조금은 무섭다”면서 “사람을 치료해주는 의료진의 모습에 감동받아 꿈꿔온 간호사가 돼 아픈 사람도 치료하고 통역도 도와주며 뿌듯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중학생 때 한국에 들어와 한국말을 배우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크리스티나(여·20)씨는 통역가를 꿈꾸며 조선대 유럽언어문화학부에 입학을 앞두고 있다.

크리스티나씨는 “한국에 처음 왔을때 한국말을 통역해주며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면서 통역가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다”면서 “세계 정상들의 통역을 도와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글·사진=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광주시, 방음터널 10곳 긴급 점검

3~5일 민·관 합동으로…안전 기준 강화 목소리도

광주시는 오는 3~5일 민·관 합동으로 광주시내 방음터널 10곳의 안전 관리 실태를 긴급 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9일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로 5명이 숨지고 41명이 부상을 입는 등 사고가 난 데 따라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번 사고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방음터널 자재로 화재에 취약한 플라스틱(폴리메틸 메타아크릴레이트)을 썼다는 점, 굴뚝처럼 뜨거운 연기를 전달하는 구조, 부족한 방재시설 등이 지목됐다.

점검 대상은 광주시에서 관리 중인 7곳과 광주순환도로투자(주)·광주순환(주) 등 민간업체에서 관리하는 3곳 등 총 10곳이다.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제2순환도로에 설치 중인 방음 터널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1개반 7명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소방분야·터널분야 등 2가지 분야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소방분야는 소화활동설비(연기 제거 시설, 송수관 설비 등), 소화설비(소화기구, 소화전 등), 비상경보기 등이 잘 설치됐는지, 피난대피설비(유도등, 비상주차대) 등이 갖춰져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터널분야에서는 포장부 파손 여부, 방음벽 손상 여부, 배수 상태 및 배수구 파손·막힘 여부, 신축이음 및 콘크리트 등의 균열 상태, 전반적 구조 안정성 등을 살핀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단순 점검으로 그치지 않고 전면적인 강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방음터널이 소방법상 일반 터널로 분류되지 않는 등 이유로 안전관리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는데, 앞으로는 화재뿐 아니라 태풍, 폭설, 지진 등 모든 위해 요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명기 동신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화재 방지에만 매몰돼 방음터널 재질을 강화유리로 교체하는 등 단순한 조치만 할 것이 아니라, 구조 안정성과 피난 대피로 확보, 대피 매뉴얼 제작 등 종합적인 방재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방음터널을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정책적인 변화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수영장서 프리다이빙하던 수강생 사망

안전요원 없어…서부경찰 수사

광주시내 한 실내 수영장에서 프리다이빙 하던 수강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서부경찰은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4시께 광주시 서구 풍암동의 한 실내수영장 내 5m 깊이 다이빙풀에서 프리다이빙 강습을 듣던 A(여·33)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뇌사 상태로 투병하다 11일 뒤 끝내 숨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A씨를 부검한 결과 사인을 익사로 잠정 결론지었다고 전했다.

프리다이빙은 산소통 없이 잠수해 한 번의 호흡으로, 수면에 떠오를 때까지 숨을 참고 수영하는 스포츠다.

사고 당시 다이빙풀에는 다른 수강생 2명과 강사 등이 있었으나, A씨가 사고를 당하는 순간은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에 “A씨가 프리다이빙을 연습하던 중 10~15분 가량 물밖으로 나오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고 당시 다이빙풀 인근에는 상주하던 안전요원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와 관련 다이빙풀 운영 업체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이빙풀 풀장은 법적으로 수영장이 아닌 별도의 시설이므로 안전요원을 배치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광주시 관계자 또한 “레일이 설치된 수영장은 체육시설업 신고 대상이나, 다이빙풀은 자유업으로 취급돼 체육시설법상 필수 시설 설치, 체육지도자·안전관리자 배치 등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 유가족이 지난해 12월 13일 강사와 다이빙풀 운영 업체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소한 데 따라 강사·운영 업체의 자격, 안전조치 이행 여부, 사고대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투기 혐의’ 광산구청 전직 공무원 항소심 무죄

도로개설을 미리 알고 인근부지를 사들여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광산구청 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태호)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 돼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89만원을 선고받은 전직 광산구청 국장 A(6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광산구청에서 도시계획, 건설, 주택 등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2017년 3월~4월 소촌산단 외곽도로 확장공사 위치를 알고 도로 주변 토지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해 3억4000여만원 상당의 인근 부동산(1127㎡)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외곽도로 확장공사 정보는 비밀도 아니었고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매수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일반인들은 1·2차 공사를 구분하거나 구체적인 시기를 알 수 없었고 문제의 도로 공고는 2018년 4월에야 난 점 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광주시가 2017년 12월 이 사건 도로 공사 예산배정 자료를 공고했고 2018년 1월에도 실시설계 용역이 추진 중이라고 공지했다”면서 “광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공고문은 말 그대로 계획이지 실제로 공고처럼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고, A씨가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미 일반에 공적으로 공개돼 비밀성이 상실됐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2계>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매각물건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단위:원]	비고
[아파트]					
2021타경57902	1	구례군 구례읍 수달생태로25-5, 102동 15층 1503호 [구례산이고운아파트]67.3829㎡	아파트	195,000,000 195,000,000	
2022타경1081	1	광양시 광장로70, 213동 21층 2101호 [중동,성호2차아파트] 59.79㎡	아파트	75,000,000 75,000,000	
2022타경1142	1	순천시 장선배기길55, 101동 2층 206호 [조례동,동신아파트] 59.58㎡	아파트	103,000,000 103,000,000	
2022타경1203	1	순천시 비봉2길22, 105동 4층 407호 [조례동,시대아파트] 37.388㎡	아파트	65,000,000 65,000,000	
2022타경1333	1	광양시 광장로70, 204동 9층 902호 [중동,성호2차아파트] 59.79㎡	아파트	84,000,000 84,000,000	
[대지/임야/전답]					
2021타경6836	1	광양시 광양읍 익신리 157 207㎡	전	18,560,000	일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
		동소 157-1 83㎡[물건번호1:연고미상분묘 소재,분묘기지권성립여지있음]	전	18,560,000	
2022타경1265	1	여수시 만흥동 산272-50 3306㎡	임야	25,786,800 25,786,800	
2022타경51826	1	보성군 회천면 율포리 375 1435㎡[현황과수원]	전	118,940,000 118,94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수목매각포함
	2	보성군 회천면 율포리 466 3210㎡[지상제시외건물매각제외]	전	250,380,000 250,38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사건번호	매각물건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단위:원]	비고
[자동차,중기]					
2022타경52300	1	사용본거지:구례군 간전면 남도대교로 99-5 등록번호:90주4076 차명:포터II 연식:2021[주행거리자동차계기판상5,582km.관리상태:내외관관리상태양호.경유.검사유효기간자동차등록원부상2021.1.4~2022.1.3.기타[옵션등]:자동변속,에어컨있음.사고이력보험개발원제공중고차사고이력정보보고서상내차,상대차피해없음]	자동차	17,500,000 17,500,000	보관:순천시해룡면복성리469-1,이수자동차매매상사[061-743-2227][제3자이영균에게 보관].제작연월일 2020년12월21일.배기량2,497cc
[기타]					
2022타경3377	1	선적항:고흥군 도양읍 선박종류와명칭:동력선장성호 선질:FRP 총톤수:4.46톤 기관종류와수:선박용디젤기관600.000마력1대 추진기종류와수:나선일체식추진기1기 진수년월일:2017.10.16 정박항:고흥군도양읍용정리장예마을앞장예선착장[어업허가관련사항및매수인이갖춰야할어업허가에관한기준과자격등매수신청전해당관청에확인요]	선박	170,270,040 170,270,040	보관:여수시국동항,의장품및어업권포함매각.어업허가받은선박으로 유효기간2023.12.31까지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② 공유자의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에서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매각기일 : 2023. 1. 16.[월] 10:00
2. 매각결정기일 : 2023. 1. 25.[수] 16:00
3.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08호경매법정
4. 매각방법
① 입찰표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함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개시 후 입찰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5.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6.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므로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제출하시고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3. 1.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법보좌관 서두현